

# “나성범과의 협상 어떻게 되나”... KIA 팬들은 속탄다

## 양현종과 22일 다시 만나기로 나성범 긍정도 부정도 못해

‘최대어’ 나성범이 실종된 FA 시장, 팬들도 지쳐 간다.  
 눈길 끄는 FA들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어’ 나성범이 자취를 감췄다.  
 고향팀 KIA의 적극적인 공세에 외부 FA 1호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나성범은 무소속이다.  
 영입을 준비했던 KIA도 잔류를 위해 노력했던 NC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걸 지켜보는 KIA팬은 물론 NC 팬들도 속이 탄다.  
 양현종의 FA 협상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올 시즌 KIA의 최대 약점은 ‘장타력’이었다. 새로 팀을 이끌게 된 김중국 감독이 우선 언급한 약점이자 과제도 장타력이었다.  
 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KIA의 입맛에 맞는 선수는 나성범이다.  
 나성범은 올 시즌에도 33개의 홈런을 날리며 파워를 보여줬다. 올 시즌 KIA의 팀 홈런은 66개로 최하위였다. 챔피언스필드 1호 홈런 주인공인 그는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야구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가장 매력적인 외부 FA에 공을 들인 KIA는 역시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해온 양현종과의 계약에도 속도를 냈다.  
 앞선 2년간의 하락세, 내년이면 35살의 선발투수라는 약점에도 KIA는 4년을 약속하면서 옵션 포함 최대 100억대가 넘는 계약서를 준비했다.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계약인 만큼 현실적

인 부분을 고려, 옵션에 더 무게가 실린 계약이기는 했지만 새 판을 짜는 KIA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징성’에 대한 예우를 한 셈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노출한 양현종 측은 ‘나성범’의 이름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협상 분위기와 규모가 공개되면서 팬들의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중국 감독-장정석 단장과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자 다시 한번 팬들의 의견이 갈렸다.  
 ‘오해’는 풀렸다고 하지만 계약은 풀리지 못했다. 주말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양현종 측은 답변을 기다렸던 KIA는 22일을 다시 D데이에 잡았다. 물론 그 전에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A 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괜한 논

란을 일으킨 과정에 대한 ‘서운함’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양현종이 강조해왔던 부분과는 다른 모습에 팬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양현종은 꿈과 도전을 내세워 스포릿 계약까지 불사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었다.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돌아오게 된 만큼 양현종은 다시 도전의 무대에 서게 됐다. 하지만 양현종 측은 도전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두고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앞서 팀을 강조했지만, 협상 과정은 그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6년 시즌이 끝난 뒤에도 해외 진출이 순탄치 않으면서 KIA는 계획에는 없던 FA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했고, 양현종은 잔류를 선택했다.  
 지난 겨울에도 양현종 측은 ‘조건부 잔류’를 말하면서 KIA에 시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세웠던 조건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KIA는 스프링캠프를 코

앞에 둔 1월 30일이 돼서야 협상 결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도 괜한 오해를 사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프로니까 당연히 ‘돈’은 우선 가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60명이 넘는 선수를 이끌고 가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프로이기도 하다.  
 반대로 KIA의 ‘침묵’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로지 한 선수에게만 시선이 쏠리게 하는 것은 선수는 물론 팀에도 좋지 못하다. 확실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이미 상처는 남았다. 빠른 움직임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KIA의 중요한 과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 우즈와 아들 찰리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퍼팅을 위해 그린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 돌아온 우즈, 아들 찰리와 10언더파 합작

### PNC 챔피언십 1라운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1년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아들 찰리(12)와 함께 10언더파를 합작했다.

우즈 부자(父子)가 한 팀을 이룬 ‘팀 우즈’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총상금 108만 5000달러)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기록하며 10언더파 62타를 기록했다.

2라운드 대회로 열리는 PNC 챔피언십 첫날 팀 우즈는 20개 팀 가운데 공동 5위에 올랐다.  
 1위는 13언더파 59타를 친 ‘팀 싱크’다. 이 팀은 2009년 디오펀 우승자 스투어트 싱크(미국)가 아들 레이건과 호흡을 맞췄다.  
 이 대회는 우즈가 올해 2월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이후 처음 출전한 무대로 팬들의 관심이 컸다. /연합뉴스

## 여자컬링 ‘팀 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 믹스더블·남자컬링은 올림픽 출전 실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김’이 라트비아를 꺾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마지막 티켓을 손에 넣었다.  
 팀 김은 1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레이와르던에서 열린 올림픽 자격대회(OQE) 여자 4인조 대회 본선 최종전에서 라트비아에 8-5로 승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여자컬링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3연속 올림픽 출전에 성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에도 도전하게 됐다.  
 7엔드까지 5-4로 팽팽하던 승부는 8엔드에서 팀 김 쪽으로 기울었다.  
 라트비아가 마지막 샷 시도에서 1번 위치에 놓인 팀 김의 스톤을 제거하려다가 자신의 방어용 스톤을 맞추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팀 김의 스킵 김은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스톤을 2번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서 손쉽게 2

점을 획득했다.  
 9엔드 1점을 따라붙은 라트비아가 동점을 위해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 이상 스톤(선공으로 나선 엔드에서 득점)을 노렸지만, 오히려 팀 김이 1점을 따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라트비아전 승리로 팀 김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지는 컬링 3종목 중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다.  
 앞서 믹스더블(혼성 2인조) 대표팀은 지난 10일 올림픽 자격대회 본선 최종전까지 진출했지만, 후주에 5-6으로 패하면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남자컬링 대표팀은 11~17일 진행된 올림픽 자격대회 예선에서 2승 6패를 기록, 9개 참가국 중 8위에 그치며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팀 김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 중국을 비롯해 스위스, 러시아, 미국,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스코틀랜드, 일본(올림픽 출전권 획득 순)과 메달 경쟁을 벌인다. /연합뉴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김’이 17일 네덜란드 레이와르던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올림픽 자격대회 여자 4인조 대회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체코에 12-6 역전승을 거두며 예선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황선우, 쇼트코스 자유형 50m·계영 200m 한국신

### 2021 FINA 쇼트코스선수권 이번 대회서 한국 신기록 3개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쇼트코스(25m) 남자 자유형 50m와 계영 200m 한국 신기록을 한 방에 새로 썼다.  
 한국 수영 대표팀은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나흘째 남자 계영 200m 예선에서 황선우-김우민(강원도청)-원영준(대전시체육회)-이호준(대구시청) 순으로 팀을 꾸려 1분28초56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제5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작성된 종전 기록(1분29초34)을 0.78초 줄였다.  
 황선우는 자신이 맡은 첫 50m 구간을 21초72로 마쳐 자유형 50m 한국 기록도 갈아치웠다.  
 단체전에서는 첫 번째 영자가 맡은 구간 기록은 같은 거리의 개인종목 기록으로도 인정한다.  
 쇼트코스 남자 자유형 50m 종전 한국기록은

2013년 인천에서 열린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양정두가 작성한 21초83이었다. 황선우가 이를 8년여 만에 0.11초 단축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조에서 5위, 전체 12개 출전 팀 중 9위에 자리해 아쉽게 8개 팀이 겨루는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강호 영국 등이 불참해 내심 단체전 사상 첫 결승 진출을 기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8위 리투아니아(1분27초28)와는 1초28 차가 났다.  
 우리나라는 쇼트코스과 롱코스(50m)를 통틀어 아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계영 400m, 남자 평영 200m, 혼성 혼계영 200m, 남자 개인혼영 100m에 이날 남자 계영 200m와 자유형 50m까지 7개의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황선우는 전날 개인혼영 100m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세 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 자유형 200m에서 메이저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는 20일 주 종목인 자유형 100m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